

크게 넓게 보는 지혜



오세익 · 편집주간

새해로 접어든지 한달이 지났지만 올해의 경기전망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 계속 꼬이고 있는 북한 핵문제, 그리고 새정권 출범 등 국내외적으로 변수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엄청난 양의 원유를 전량 수입해 사용하는 우리로서는 기름 값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사활적 과제인 북한 핵문제를 적당히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경제가 블록화와 함께 내셔널리즘의 보이지 않는 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국내사정이요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국내의 6개 주요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올 성장률 예상치가 5.3%에서 5.9%이고 정부에서도 올 성장률을 5%대로 잡고 있는 걸 보면 큰 변수가 없는 한 예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산업도 그렇지만 특히 인쇄업은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어야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고 도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특수 도시형 업종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 들어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버블현상이 사라질 조짐을 보이는 등 일반경제 환경이 경직되면 인쇄업은 5%대의 성장은 고사하고 지난해 수준을 지키기에도 버거운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많은 인쇄사들이 이런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영업 목표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기업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문제를 큰 틀에서 보고 풀어나가는 자세와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쇄인 상호간의 해묵은 감정이나 트러블은 모두 털어 버리고 포용력과 사랑의 물결이 흐르도록 서로 노력해야만 한다. 시간이 지난 후에 웃음거리가 되고 인쇄업계에 부끄러운 앙금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끊이지 않고 있는 덩핑문제도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심적인 결정을 내리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둘째, 긍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만약에 인쇄업계에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말로 물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잦아진다면 이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기업도 부정적인 결과밖에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비전 있는 개인 신뢰받는 기업으로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만 할 때이다. 인쇄업계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투명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세상이기도 하다. 이런 때 일수록 크게 그리고 넓게 보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